

도 협 소 식

1972年度 第3次 理事會 會議錄

日 時 : 1973年 2月 28日 午後 4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姜周鎮(會長) 金德勤, 金海龍(監事), 朴致旭, 朴熙永, 孫成祐, 吳榮煥, 禹大燮, 尹龜鎬, 李相助, 李載喆, 李喆珪, 李鴻球, 張一世, 崔根滿, 韓相完, 委任 13名(가나다順)

案件 :

- ① 事務局 報告
- ② 1972年度 事業實績報告
- ③ 1972年度 決算報告
- ④ 1973年度 事業計劃案 審議
- ⑤ 1973年度 豫算案 審議
- ⑥ 第五回 韓國圖書館賞 審查 結果 報告
- ⑦ 監事補選
- ⑧ 其他

成員報告 : 理事 33名 監事 2名 總 35名中 參席 16名, 委任 13名, 總 29名으로 成員되었음을 崔根滿 事務局長이 報告하다.

議長(會長) : 이제 事務局長이 報告드린 것과 같이 成員이 되었으므로 理事會를 시작하겠습니다. 案件의 順位에 따라서 먼저 事務局 報告가 있겠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油印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報告하다.

사무국 보고

2월 2일 : 73년도 한국도서판상 및 표창 심사 위

월회 개최

2월 5일, 6일 : 문교부 감사 실시

2월 15일 : 7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문교부 승인

2월 15일 : 사무국 속직 실시

2월 23일 : 제2회 전문위 분위장 회의 개최

2월 24일 : 1/4분기 국고 보조금 지급통지서 접수
(1,105,500원정)

2월 26일, 28일 : 감사원 감사 실시

議長(會長) : 報告事項을 모두 듣고 質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찬성하다.

朴大權(總務部長) : 1972年度 事業實績報告를 油印物

에 의하여 詳細히 報告하다.

崔根滿(事務局長) : 1972年度 決算報告를 油印物에 의하여 詳細히 報告하다.

議長(會長) : 지금까지 報告드린 事務局 報告와 1972年度 事業實績報告 그리고 1972年度 決算報告에 대해서 質問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文(理事) : 退職金은 支拂된 것 같은데 積立이라 고 報告하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尹龜鎬(理事) : 指導育成費豫算이 50萬원인데 執行은 9萬원 밖에 안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吳榮煥(理事) : 委員會費도 마찬가지인 것 같읍니다豫算은 20萬원이나 세웠는데 決算額이 48,500원에 불과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張一世(理事) : 委員會費 問題는 前番 理事會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記憶합니다만 委員會가 活動을 못하면 圖協이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침체해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自體 收入이 800萬원인데 그중에 650萬원이 紙與와 運營費로支出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살림이 어딘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세해 예산에는 좀反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朴熙永(理事) : 積立金項目이 따로 있는데 退職金을 支拂한 것으로 處理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읍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우리 協會가 基本資產이 있으면 退職金을 念慮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理事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직원중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퇴직을 하지 않게 되어 집행이 안 됐으나 이것을 퇴직적금으로 넣는 것이 어떨까하여 會長님께 재자를 얻어서 적립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李載喆(理事) : 專門委員會의 責任을 맡고 있는 저로서 大端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專門委員會가 活潑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 같읍니다. 좀더 積極的으로 많은 事業을 推進했어야 했는데 이런 結果를 가져와서 大端히 미안합니다.

尹龜鎬(理事) : 이 問題는 圖協의 全般的인 運營에 관한 일인데 事務局이나 理事會나 專門委員會 등 어느 機關에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責任을 느끼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吳榮煥(理事) : 專門委員會가 諮問機關인지 아니면 議決機關인지 알고 싶습니다. 即 協會에서 刊行되

는 出版物이 專門委員會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專門委員會 規程에 보면 諮問 및 建議 機構로서 明示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出版物이나 其他 協會의 運營에 따르는 諸問題가 專門委員會의 決意로서 執行되는 것은 아닙니다.

李相助(理事) : 委員會 規定을 보니 두말할 것 없이 諮問機關으로 되어 있고 이제 事務局長님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關係分委에서 도 모르게 推進되었다면 事前에相互理解가 않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더욱 協助가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議長(會長) :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도理解가 않되는 점이 있으시면 더 묻고 밝혀서 서로 誤解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理解가 잘 되셨다면 事務局報告와 事業實績報告 그리고 72年度·決算報告를 받아주시는 뜻에서 박수를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로 접수 하다.

議長(會長) : 다음은 73年度 事業計劃과豫算案을審議하겠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이 事業計劃과豫算案은 例年 그렇게 되웠습니다만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文敎部의 承認을 받았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읍니다만 총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총회 안전으로 내용이야하니 여러 理事님께서 좋은 의견과 討論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文(理事) : 文敎部의 承認을 받았다고 하는데 自體收入豫算에 대해서도 承認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朴大權(總務部長) : 原則적으로 그런 规定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補助를 주는 입장에서 補助事業만 보는 것이 아니라 自體事業이나豫算도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補助를 받을 때도 어느정도의 自體ability이 있어야 합니다.

張一世(理事) : 앞으로 總會가 1週程度 남았는데 새로構成되는 理事會에 委任하면 어떨지는 역시 새해 새 사람들이 새롭게 심의 결정해서 살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相助(理事) : 이 일은 그 경위를 보면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문제점이 있읍니다만 이 자리에서 심의 결정해야 할 것 같군요.

議長(會長) : 政府의 새豫算이 前年 6月頃이면 이미 原則의인 태두리가 서게되니 그렇게 하자면

우리도來年豫算을 지금부터라도 論議가 되고 計劃이 되야하고 그때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라도 召集해서 研究하고 檢討해서 올려야 하지만 時間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일히 의논이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어떻튼 결차는 밟아야 하니 우리가 어렵고, 구차스럽긴 하지만 앞으로는 잘 의논을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朴熙永(理事) :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新年度豫算書에 보면 圖書館大會는 項으로 되고 總會理事會는 「目」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둘째, 積立金이 昨年에 倍로 되었는데 全體의豫算規模는 즐고 있으니 이렇게 積立를 倍額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配付費는 今年度豫算에는 額面表示가 없고 退職金은 昨年에 70萬원이었는데 今年에는 하나도 책정이 않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崔根滿(事務局長) : 첫째로 事業別로豫算을 짜다보니 圖書館大會와 會議費는 項으로 들어가고 會議費內에 總會費와 理事會費가 들어 있기 때문에 總會費가 「目」으로 되었습니다. 둘째로 積立關係는 原來 퇴직금의 적립을 위해 每月 적립을 하여야 하나 그동안 예산 규모상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직원의 사임이 있든 없든 퇴직금을 예산에 확보 적립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배부비」는 금년도부터는 명칭을 바꾸어 「도서배부사업」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李鴻球(理事) : 奨學基金도豫算上에는 表示가 없는 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項目變更를 文敎部에서 한다면 來年에 退職金項目도 없어질 可能성이 있지 않습니까?

議長(會長) : 제가 알기로는 奖學基金關係는 現在特別會計로 별도會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文敎部가 項目變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名目으로든지 積立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73年度事業計劃 및豫算案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으시면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滿場一致로 同意原案대로通過시키다—
議長(會長) : 會順에 따라서 다음案件은 第五回韓國圖書館賞審查結果報告인데 李載喆理事께서 해주시겠습니다.

李載喆(理事) : 今年度·圖書館賞申請은 個人功績에 15名, 團體功績이 3個處, 研究賞이 3, 모두 21件이 接受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勤績賞은

하나도 接受된 것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接受된 21件을 놓고 지난 2月 2日 審查한 결과 個人功績 이 3분 即 朴致旭 先生, 朴熙永 先生, 白麟 先生 그리고 團體에 仁川濟物浦高等學校 圖書館이 決定 되었읍니다. 以上과 같이 報告합니다.

—일동 박수로 報告를 接受하다—

議長(會長) : 다음은 監事補選問題인데요 그동안 감사한 분이 館界를 떠나셔서 辞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下半期 監查를 施行하지 못하고 있는데 監事補選에 대한 意見을 말씀해 주십시오.

孫成祐(理事) : 여러 가지 會議節次上 갖추어야 할 要件이 있겠읍니다만 이번 監事는 總會를 앞두고 한번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에 계신 최성락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議長(會長) : 이제 孫理事께서 거두절미하고 감사를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일동 滿場一致로 찬성 선출되다—

議長(會長) : 다른 밀씀들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73年度 第1次 理事會 會議錄

日 時 : 1973年 3月 19日 오후 4시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李瑄根(會長), 金斗弘(專務理事), 金世翊, 金允泰, 金鍾文, 朴啓弘, 朴致旭, 朴熙永, 徐章錫, 孫成祐, 李春熙, 任鍾淳, 監事 : 金海龍, 尹龜鎬 (가나다順)

案件 : ①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에 관한 일



(理事會 光景)

② 도서관 주간행사에 관한 일

③ 專門委員長 委嘱에 관한 일

④ 1974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일

⑤ 其他

成員報告 : 現在 理事 12名, 監事 2名 모두 14名이 參席하여 成員되었음을 事務局長 報告하다.

人事紹介 : 崔根滿 事務局長이 新任 會長님께 理事님들을 紹介하고 相互 人事를 나누다.

會長人事 : 時間의으로나 여려 가지로 부족하고 미약한 저를 會長으로 뽑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보다도 專務理事나 事務局長과 모든 일을 相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혹 결례되는 일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전무이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專務理事(金斗弘) : 첫째 案件이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에 관한 일입니다. IFLA총회는 대부분 歐洲地域에서 開催되었고 아시아 地域에서는 한번도 開催된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總會를 서울에서 한번 開催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그레노블에서 열리는 제39차 총회에서 결의가 되도록 하는 問題에 관련된 内容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추진경위에 대한 說明은 事務局에서 해 주시겠고 會議開催誘致를 위한 代表派遣 및 이에 따르는 人選問題 등입니다. 먼저 경위 설명이 있겠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IFLA 總會를 75年度쯤 서울에서 開催해 보자는 몇몇理事님들을 비롯한 館界重鎮들의 意見이 계셔서 그동안 여러모로 研究檢討해 보았읍니다. 따라서 國際會議를 서울에서 開催하는데는 아무래도 政府의協助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몇차례 청와대 당국과 協議를 하여 原則的인 合議를 大體의으로 끝냈읍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제출했던 資料를 가지고 朴部長이 그 경위와 자세한 内容을 說明하겠습니다.

朴大權(總務部長) : Mini Chart에 의해서 IFLA의概要와 參加國 및 總會開催 所要 豫算에 대해서 詳細히 說明하고 특히 서울에서 開催하는 경우 共產國家代表의 入國비자 發給問題와 所要經費問題가 第一問題가 되었으나 前例로 봐서 參加人員을 1,000명으로 보고 參加費 30弗씩 3萬弗(1,200만 원)과 정부보조 1,200만원 都合 2,4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짜여졌고 비자발급문제는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 대개 가능한 것으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 우리 나라 代表를 파견해서

총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절차가 어려우니만큼 이를 잘 추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會長(李埴根) : 參加費가 1人當 30弗씩 30萬弗(1,200萬원)을 合쳐서 2,400萬원이라면 旅費 및 宿泊費를 自體負擔이라고 하드라도 豫算이 좀 부족할 것 같군요.

金世翊(理事) : 그간에 IFLA 본부와는 어떤 形態로라도 交涉이나 接觸을 해본 일이 있는지요.

金允泰(理事) : 어떻게 아시아地域에서 한번도 開催된 일이 없는지 알 수 없군요 혹시 그때쯤이면 日本에서 開催할려고 誘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崔根滿(事務局長) : 現在로서는 우리의 態度가 確固히 서 있는 것이 아니어서 交涉을 할 수가 없었읍니다. 오늘 이 자리서 결의가 되면 즉시 交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FLA 본부로부터 日本에서 한번 開催해 보도록 권유를 받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日本圖協이 會館을 建立한 後에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회관을 짓고 있으니 75년 度쯤에 日本에서 誘致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專務理事(金斗弘) : 그러면 經緯나 內容에 대해서 잘 아셨을 뿐 믿고于先 總會를 誘致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徐章錫(理事) : 이의 없이 開催하기로 動議합니다.
一滿場一致로 決議 可決하다—

專務理事(金斗弘) : 그러면 다음 문제는 代表를 派遣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가 前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國際會議를 誘致하는 問題이니만큼 外國語의 能力은 물론 外交能力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겠고 둘째는 協會에 經費가 없으니 所屬機關에서 所要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겠습니다.

朴啓弘(理事) : 이제 專務理事께서 말씀하신 그런 條件과 力量이 있는 분을 個別으로 接觸해서 몇 사람이 있는지 事務局에서 調査하고 이 일을 다시理事會를 召集해서 決議하고 하자니 너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理事會에서는 이 人選問題를 會長님에게 일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 결의하다—

會長(李埴根) : 그러면 지금의 提案을 받아드리면서 專務理事와 事務局長이 우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이를 잘 알아봐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會長이 決定하기에 좋지 않겠어요.

專務理事(金斗弘) : 다음案件은 예년 실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만 圖書館週間行事計劃에 관한 일입니다.

孫成祐(理事) :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事項이 있으

시면 그部分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油印物이 나와 있으니 原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例年 施行하든 것과 별차는 없읍니다만 新聞, 라디오, TV 등 座談會의 人選問題는 이자리에서 해주시고 講演會는 會長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계획을 해 봤습니다.

會長(李埴根) : 제가 昨年에 大邱에서 講演을 한 일이 있으니 이번엔 그만 두죠 그러나 새 會長으로서 人事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西江大學校의 李光麟 教授에게 付託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尹龜鎬(監事) : 제가 會長님께서 李教授님을 추천하시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啓弘(理事) : 例年 하는 行事이니 事務局에서 맡아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좀 어렵다면 專務理事와 局長 그리고 朴熙永 理事님이 좀 수고해 주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 주간이니 이 주간에 도서관을 탐방해서 실재도서관이 움직이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金世翊(理事) : 油印物의 各級 圖書館이 實施할 事項을 보면 圖書館 無料開放이란 말이 있는데 圖書館에서 돈을 빙는다는 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後進性을 자랑하는 결과 밖에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구는 뺏으면 좋겠습니다.

專務理事(金斗弘) : 金理事 말씀은 잘理解가 갑니다만 一般이 잘 모르고 또 新聞이나 メスコム에서는 이것을 아주간의 큰 이슈로 다르는 형편이니 그대로 두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圖書館週間計劃을 어떻게 할까요.

—좌담회 인선을 專務理事, 局長, 朴熙永 理事에게 委任키로 하고 다른 것은 原案대로 받기로 찬성 통과되다—

專務理事(金斗弘) : 안전 ③은 여러 理事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大端히 重要한 案件입니다. 專門委員長은 어느 분이 좋은지 德望있으신 분을 추천해서 會長님이 임명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孫成祐(理事) : 어떤 個人을 먼저 推薦하는 것보다 現理事에서 選出하는지 아니면 理事以外의 사람 중에서도 인선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면 어느정도範圍가 잡힐 것이 아니겠어요.

朴啓弘(理事) : 定款에는 理事中에서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않된다든지 하는 规定이 없으므로 문제는

안되지만 專門委員長의 비중으로 볼 때 理事會에 도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議論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理事中에서 選任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徐章錫(理事)：専門委員長의 所任의 重要的한 것을 생각해서 그에 적합한 훌륭한 분을 뽑다보니 그분이 現理事라면 대단히 좋겠지만 혹시 그 외에도 더 좋은 적합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대상으로 놓고 의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會長(李瑄根)：만일理事가 아닌 분이 적합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모시되 이사회와 결의로 이사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면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專務理事(金斗弘)：그려면 아무런 구애 없이 自由스럽게 推薦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時間 論議한 결과 張一世 先生을 專門委員長으로 選出하다—

專務理事(金斗弘)：다음은 1974年度 事業計劃 및豫算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推進할 圖協事業과豫算을 事前에理事님들과 議論하여 좋은計劃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 좋은 方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任鍾淳(理事)：總會前까지 제가 書誌分委員長직을 맡아 왔습니다. 본래는 選定分委였던 것이 昨年에 書誌分委로 改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主業務가 亦是 選定作業인데 今年에豫算이 오히려 줄은 것 같고 現在豫算으로는 매우 어렵고 애로가 大端히 많습니다. 따라서來年豫算에는 專擔職員을 하나 두도록豫算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崔根滿(事務局長)：來年度에는 補助金을 다소 增額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可能한 事務局에서 도 選定事業만은 더 충실히 이끌어 가려 하고 있고 專擔職員을 두는 問題도 研究해 보겠습니다.

金海龍(監事)：昨年の 경우를 보면 專門委員會事業이 不振했고 地區協議會 指導育成事業도 매우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來年에는 이 점을 유의했으면 합니다.

朴啓弘(理事)：제가 74年度豫算에 반영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FLA總會開催準備費와 둘째, 協會弘報費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現在까지는 弘報費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圖協이 자주 매스콤에 크로즈업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셋째는 專門委員會所管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分野別로 一般敎養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圖書館人들의 自體敎養을 넓히는 일에 주력을

좀 두었으면 합니다.

朴熙永(理事)：갑자기 來年度에 推進할 事業을 생각하라니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줘서 即 3月 31일 까지면 그때까지 기간을 줘서 이사님들이 案을 作成해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致旭(理事)：이제 朴理事님 말씀과 같이 理事會에서는 3月 31일 까지 '74年度事業計劃案을 내기로 하고 또 하나는 現在 市道單位로 地區協議會가 있으니 이 地區協議會의 事業計劃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또 그의 지도 육성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어 주었으면 합니다.

徐章錫(理事)：定款에 의해서 學校圖書館部會가組織이 되었고 제가 會長職을 맡고 있는데 요즘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 文教當局에서 高等학교 平準化計劃을 세우고 全般的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司書教師의 立場이 現在 매우 弱한데 To를 재조정해서 감원을 단행하는 경우 사서직의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인정 안한다면 現在보다도 더 약화될 우려마저도 있지 않을까하여 學校圖書館部會에서 報告겸 特別한 배려를 해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朴致旭(理事)：지금 徐校長先生님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數없이 우리가 建議도 하고 論議도 했습니다. 특히 慶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未安합니다만 數年來에 教導教師는 그동안 全擔發令을 많이 받았는데 司書教師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점으로 생각할 때 現在 徐校長先生님이 學校圖書館部會 會長님의 자격으로 積極히 이問題를改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會長(李瑄根)：司書職이나 司書教師의 身分에 關한 問題라든지 基本政策에 關한 問題는 어느 機會에 제게 좀 説明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關係要路에 協助를 구하는 일이라든지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힘 퉁는데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專務理事(金斗弘)：그러면 '74年度 事業計劃 및豫算에 關한 일은 이만 討論을 終決하고 3月 31일까지理事님들이 案을 事務局에 제출하고 事務局에서도 各 地區協議會의 意見과 事業計劃을 받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동 滿場一致로 찬성 통과하다—

專務理事(金斗弘)：다음은 其他 案件입니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朴熙永(理事)：私立大學校圖書館協議會가 昨年에 이미 結成이 되었는데 理事會의 承認이 없어서 아직 活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를 其他案件으로 해서 承認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崔根滿(事務局長)：昨年度 理事會에서 報告事項으로 報告가 되 있읍니다만 바로 前理事會에서 任期가 만료되서 次期理事會로 委任한 事項입니다.

會長(李植根)：오늘 이 문제도 정식 안전으로 채택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시죠.

朴致旭(理事)：學校圖書館部會도 정식 承認은 안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私立大學校 도서관협의회와 같이 승인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일동 滿場一致로 찬성 承認하다—

金世翊(理事)：그러면 學校圖書館部會와 私立大學校圖書館協議會의 承認과 또 하나는 전문위원회의 강화문제를 其他案件으로 제의합니다.

專務理事(金斗弘)：김理事께서 말씀한 것과 그外에 좀전에 논의한 學校圖書館의 문제를 견의하는 문제를 추가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회 강화문제에 대해서는 몇분 위원을 내서 그분들에게 위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동 찬성 결의 하다—

朴熙永(理事)：전문위원회 강화문제는 新任 專務理事, 事務局長, 專門委員長, 그리고 金世翊理事 이렇게 네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동 찬성 하다—

專務理事(金斗弘)：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오늘 이 사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年度 第 2 次 分科委員長會議錄

日 時：1973年 2月 23日 오후 3時

場 所：圖協 事務局

參 席：李載喆(委員長), 金世翊, 金宗會, 李丙洙,
任鍾淳, 玄圭燮

議長(委員長)：여러 가지로 바쁘신 時間이지만 나와 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동안 많이 격려도 했었고 이제 저희들의 임기도 다 되고 해서 각분과 별로 정리해야 할것도 있겠그 狀況을 報告하는 것도 意義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읍니다. 특히 金宗會先生님께서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서 大端히 미안합니다. 그러

면 각 분과별로 그간에 추진한 일을 報告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世翊(教育·調查分委長)：저희 分科에서는 매년 하는 일입니다만 “한국도서관통계”를 발행했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 의견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專門委員會의 組識을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 分科를 둘어 놓을 필요가 있는지 分科를 줄여서 實質的으로 일할 수 있는 體制로 改編했으면, 即 第1 第2 第3 分科하는 式으로 再組織했으면 좋겠습니다.

玄圭燮(出版分委長)：機關誌(도협월보)分委 役割과에는 못했는데 圖協의 出版物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機關誌도 완전히 독립된 Journal로서 編輯發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委員長)：처음에 編輯分委였던 것을 出版分委로 改編한 意圖가 圖協에서 刊行되는 모든 出版物을 管割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않된 모양입니다.

金宗會(機械化分委長)：파충한 責任을 제게 부여해 주신 것 같읍니다. 따라서 命만 받았지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時間조차 없이 그냥 또 任期가 다 된 것 같은데 어놓든 無에서 無로 끝을 맺게 됐으니 대단히 유감입니다.

議長(委員長)：機械化分委는 新設分委로서 그동안 活動할 時間의 여유가 없었고 다만 發足되었다는 데 그 意義가 있을 것 같읍니다.

李丙洙(分類分委)：分類分委에서는 그동안 KDC의 修正作業을 시도해 봤읍니다만 分類表를 修正하려면 分類法以外에도 이 問題와 關聯해서 유의해야 할 점도 많고 또 여러가지 分類表와 比較 檢討해야 하는 등 問題點이 많읍니다. 그런데 現在 KDC를 쓰고 있는 사람들로서 學的인 배경도 충분히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맡아야 하는데 저부터도 能力이 부족하고 해서 2~3次 맞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十進分類法을 研究하고 있는 사람과 實務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잘 조화가 되어서 이 일을 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NDC를 수정하는 사업에 90명이 등원했다고 하는데 現在 5~6명 정도의 委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인 것 같읍니다.

金世翊(教育·調查分委長)：제가 하나 물겠습니다. 現在 KDC에만 局限하려는 것 같은 印象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어찌에 기인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分類法의 全般的인 것을 연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해야 하는 것이 分類分科委員會의 일이

라고 보는데요.

議長(委員長) : 亦是 現在 圖協이 KDC에 대한 發展 을 圖謀하고 또 그를 推進하고 있는 데문인 것 같 익니다. 다음은 目錄分委의 分委長이 제시면 말 씀하겠는데 參席을 못하였으니 제가 한 말씀드리 겠습니다. 目錄分委에서는 우선 지난 1月號 도협 월보에 目錄規則의 問題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 目錄分委의 解明을 要求한記事가 있었습니다. 即「用例나 解說이 一致하지 않고 있다는 要指」인 것 같 익니다. 이 문제는 다음의 目錄分委에 委任해서 선 결사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익니다.

—일동 찬성 결의하다—

任鍾淳(書誌分委長) : 본래 저의 분위는 선정도서분 위였는데 72年初에 書誌分委로 改稱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以前에 벌써 書誌年表가 나왔고 選定事業은 본래가 우량도서 선정이나 양서선정을 위한 것이 아니였고 각급 도서관의 수서업무의 보 조적자료로서 제시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이에 대 한 다소의 오해가 있어서 理事會에서도 몇번 논

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전담하는 사람도 없 어지고 해서 昨年 71年보다 수집이나 조사도 잘 않았고 Title도 823종 밖에 선정하지 못했읍니다.

金世翊(教育·調查分委長) : 委員長께서 專門委員會의 애로를 理事會에서 잘 理解시켜 주시기 바랍 니다.

金宗會(機械化分委長) : 教育·調查分委에서는 다음에 다시 統計表를 만들 때 도서관의 電話番號와 復寫機有無의 表示欄을 만들어서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全體內容을 한글보다 漢文으로 印刷해 주었으면 더욱 도움이 잘 되겠군요.

議長(委員長) :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다만 저의 임기중에 별로 성과도 없고 오히려 委員會事業이 위축된 것 같아서 大端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제 부덕한 탓인 것 같읍니다. 널리 理解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分科委員長님들께서 手苦 많이 하셨읍니다. 다른 말 씀 없으시면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일지 ☆

- 2월 14일 사무국장 아시아 재단, 문교부 방문
- 2월 23일 제2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오후 3시)
- 2월 28일 제3차 이사회(오후 4시)
- 3월 2일 문교부 방문(총무부장)
- 3월 3일 국고보조금 1\4분기 영달 (1,105,500) 자체 감사실시
- 3월 8일 제9차 정기총회(제1일)
- 3월 9일 " (제2일)
- 3월 19일 제1차 이사회(오후 4시)

☆ 배부의뢰 도서 ☆

경제논집(11권 4호)	161부
에어리뷰(제39호)	78〃
교통안전(제39호)	130〃
행정농집	78〃
철학사상(제3집)	30〃
동국대학교 안내(영문)	60〃
포장설계 사례집	34〃
종합 연구 보고서	34〃
포장백서	34〃
단책	47〃
서울 대학교 도서관보	111〃
국제 학술발표논문집(영문)	60〃
사진으로 본 공군20년사	21〃
성균관 대학교 요람	90〃
국어정책	378〃

☆ 신착참고도서 ☆

- Unesco Publication Catalogue(1973) UNESCO Newsletter (vol. XIV, No. 4 1972) UNESCO Special Libraries (vol. 63 No. 9 1972)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 日本の図書館(1971年) Japan Library Association
- 図書館雑誌(1973年 1, 2月) 日本図書館協会
- 國立國會圖書館月報 (No. 142 1973. 1) National diet Library
-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vol. 31 No. 40, 41) 46, 47, 48, 49, 50, 1972) 美國國會圖書館.
- American Libraries(1973年) American Libraries Association
- 出版文化(1973年 2月) 大韓出版文化協會.
- びぶろす(vol. 24 No. 1, 1973年) 日本國立國會圖書館
- TAL Bulletin(1972年 3月) Thailand Library Association
-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 21 No. 1 1973年 2月) The Library Association of Australia
- 신문클리핑목록 (1965年 12月 1日~1972年 6月30日) 釜山市立圖書館.
- Das SchweizerBuch(Bern. B. 6 A.1, 22, 23, 24 A.3)
- Newsletter(No. 35) National Diet Library

뉴

우

스

本 協 會 公 共 圖 書 館 部 會 1973 年 度 總 會 開 催

本 協 會 爲 公 共 圖 書 館 部 會 1973 年 度 總 會 가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特別市立南山圖書館에서 關 催 되었다.

이 날 總 會 에는 全 國 的 公 共 圖 書 館 會 員 이 多 数 參 席 한 가운데 關 催 式 에 이어 國 立 中 央 圖 書 館 의 公 共 圖 書 館 會에 대 한 資 料 支 援 計 劃 을 비 롯 하여 어린이 讀 書 學 校 運 營 的 問 題 와 親 善 體 育 大 會 問 題 등이 協 議 되었 다고 한 다. 또한 당 일 오전에는 國 立 中 央 圖 書 館 에서 常 任 研 究 委 員 會 를 갖고 1972 年 度 事 業 實 績 및 決 算 報 告 와 1973 年 度 事 業 計 劃 및 豫 算 審 議 가 있 었 다고 한 다.

本 協 會 醫 學 圖 書 館 協 議 會 第 6 次 定 期 總 會 開 催

本 協 會 醫 學 圖 書 館 協 議 會 第 6 次 定 期 總 會 가 오는 4월 14일(토) 高 麗 大 學 校 醫 科 大 學 圖 書 館 에서 關 催 될 豫 定 이라고 한다. 이번 總 會 에서는 1972 年 度 決 算 및 事 業 實 績 報 告 와 1973 年 度 事 業 計 劃 및 豫 算 審 議 가 있 을 것 이라고 하는데 會 員 的 多 数 參 席 을 바 랐 다고 한 다.

마을문고 경북지부 발족

마을문고 경북지부가 지난 3월 23일 발족되었다고 한다. 道 內 5,092 個 마을문고의 豐 實 적인 육 성 은 물론 讀 書 人 口 的 저변 을 확 대 함 으로 써 새 마을 운동의 精 神 的 面 을 지원 하여 地 域 社 會 發 展 을 圖 謀 하 고자 道 單 位 의 組 織 으로 서는 처음 으로 發 足 된 것 이라고 한다. 마라 서 今 年 에는 道 內 60 호 이상의 自 然 部 落 에 모두 文 庫 를設 置 하고 職 場 이나 其 他 團 體 別 를 그 特 性 에 맞는 文 庫 를設 置 함 은 물 론 市 郡 聯 合 協 議 會 的 組 織 과 巡 回 指 導, 指 導 者 教 育 및 60 萬 卷 的 圖 書 收 集 등 意 慾 的 인 事 業 을 計 劃 하고 있다 고 한다. 그런데 同 支 部 的 事 務 局 長 에는 前 마을문고 본부 지도부장 으로 있던 韓 이영호 선 生 이 맡 게 되었 다고 하며 연락처는 경북 대구시 중구

1973년 4월 1일 인쇄
1973년 4월 5일 발행

<월간> 도 협 월 보

제 14 권 제 4 호

발 행 인 강 주 진
편 집 인 최 근 만

삼덕동 1가 35번지라고 한다.

어린이會館에서 圖 書 및 圖 書 館 利 用 法 指 導 — 國 民 學 校 어린이에게 —

어린이會館 圖 書 室 에서는 지난 3月 27日 부터 市 内 國 民 學 校 어린이를 대상으로 每 日 2 時 間 間 (12:40 ~ 2:30) 圖 書 및 圖 書 館 利 用 法 을 指 導 한다고 한다.

國 民 學 校 어린이에게 自 律 學 習 的 能 力 을 배 양 시켜 스스로를 教 育 해 갈 끝 알 기 하는 習 慣 을 길 려 주기 위 해 실 시 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 매 일 300 余 名 的 어린이 들이 이 시간에 參 席 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 속 해서 이 利 用 法 을 지도 할 것 이라고 한다.

司 空 哲 先 生 歸 國

지난 1月 18日 East-West Communication Institute 의 초청으로 渡 美 했던 韓 國 科 學 技 術 情 報 센 터 의 司 空 哲 氏 가 3月 19日 KAL 機 便 으로 金 浦 空 港 着 歸 國 하였다고 한다.

司 空 哲 氏 는 同 研 究 所 가 1月 22일 부터 3月 16일 까지 8주 간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開 催 한 Internship on Communication Documentation 에 參 席 을 했 으며 Hawaii 大 學 에서는 Graduate School of Library Studies 에서 Abstracting and Indexing for Information Service, Information Searching and Documentation,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등의 講 座 에도 參 席 聽 講 하였 다고 한다. 특히 MEDLARS System 的 國 內 活 用 問 題 를 研 究 하였 다고 한다.

第 18 回 讀 書 週 間 記 念 優 秀 展 示 會 表 彰 狀 受 賞 者

- ◎ 優 秀 賞
建 國 大 學 校 中 央 圖 書 館
사 래 지 오 중 고 등 학 校 도 서 관
弘 益 大 學 校 中 央 圖 書 館
- ◎ 獎 勵 賞
全 日 圖 書 館
全 南 女 子 高 等 學 校 圖 書 館

발행소 사단법인 한 국 도 서 관 협 회
서울특별시 종 구 소공동 6 (국립중앙도서관 구내)

전 화 (22) 4864 · 5613
진 체 서 울 3753
사 서 합 서울 국제 2041
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라-29
인쇄인 삼성인쇄주식회사